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 하루에 하나



2025.12.9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원/달러 환율

1,466.90원 (-1.90원)

## KOSPI

4,154.85 (+54.80, +1.34%)

## KOSDAQ

927.79(+3.05, +0.33%)

## 국고채 10년 금리

3.401(+0.04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테슬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 한국 국채 [박승진]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 Oracle, Broadcom [박승진]

DIN (Doo It Now) 12월 FOMC 프리뷰(Feat. 카오스 이론) [김두언]

신흥국 전략 인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배경 [김근아]

해외채권 브라질 국채 금리 급등 코멘트 [허성우]

## 기업분석

한국단자 반도체, ESS, 로봇 커넥터 등으로 확장 중 [송선재]

## 산업분석

운송 11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한일령 수혜 있으나, 동남아가 발목 [안도현]

## Weekly

건설 2026년은 지방균형발전 [김승준]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로템, 두산, 삼성에스디에스, KCC, CJ대한통운, 파라다이스, 지역난방공사, 한국단자, 고영

하나증권

2025년 12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 Global ETF

# New K-ETF

## 테슬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 한국 국채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신규 상장 ETF(12/9)

#### -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미국 테슬라 종목의 커버드콜 포지션과 한국 국채 포지션을 함께 조합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테슬라 주식 매수 및 테슬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테슬라 포트폴리오를 30% 비중으로, 한국 국고채 3년물 포트폴리오를 70%의 비중으로 구성한다.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하는 테슬라 포트폴리오에서도 절반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5%는 분배금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포지션이 구축되고 나머지 15% 비중은 테슬라 주가 변화에 연동되는 조합이 만들어진다. 또한 테슬라 커버드콜 포지션의 경우, 분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사가가 ATM 영역에 놓여있는 콜옵션을 활용하는 한편, 주간 단위의 위클리 커버드콜 형태로 운용한다. 참고로 지수 산출일(2019/1/7) 이후의 프리미엄 기준 평균 분배금 수익률(매일 변동, 15% 비중 가정)은 연 24% 수준이다.

전체 자산의 70% 비중에 해당하는 한국 국고채 포트폴리오는 국채 선물 3년물 근원물의 바스켓에 편입된 현물 종목들을 우선 편입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평균 드레이션 수준과 균접한 최근 발행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전체 포지션 중 테슬라 포트폴리오와 국고채 포트폴리오의 30%:70% 비중 조건은 일간(영업일 기준) 단위의 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하위 포트폴리오 가운데 테슬라 콜옵션의 경우 매도 대상 콜옵션 만기일의 1영업일(미국 기준) 전에 새로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한국 국고채 포트폴리오는 국채 선물 근원물의 최종 거래일(3월/6월/9월/12월의 세번째 화요일)에 편출입 작업이 이루어진다.

채권혼합형 ETF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총보수는 0.39%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도표 1.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상장일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혼합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39%
구성종목 수	테슬라 주식 1종목, 국고채 9종목, 콜옵션 1종목
비중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옵션: 기초자산인 테슬라 주식 50% 명목금액에 해당하는 옵션 매도 비중을산출하여 콜옵션 매도</li> <li>▣ 채권: 종목 간 동일 비중 방식</li> </ul>
정기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수: 미국 주식 시장 또는 한국 주식시장이 영업일인 날짜 기준으로매일 비중 산출 (3:7)</li> <li>▣ 하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슬라 콜옵션: 해당 지수의 매도 대상 콜옵션의 옵션만기일 1영업일전(D-1) (표준 주간 만기일은 매주 금요일)로 모든 영업일은 미국 주식시장거래일 기준으로 선정</li> <li>- 채권: 국채 선물 근원물의 최종거래일 즉 3,6,9,12월의 세 번째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편출입</li> </ul> </li> </ul>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5.12.8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 Oracle, Broadcom

FOMC, 물가보다 편더멘털 경계 가능성. 단기 수급 변화 염두, 중장기 전략 유효: CHAT, SMH, ZAP와 XLE, XBI, XLV, QDF의 활용

- 글로벌 수급:**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인 자금 유입 규모가 감소하였다. 수급을 주도해 온 북미 ETF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위축된 영향이다. 북미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액이 +113.2억달러(직전 +217.6억달러)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채권형 ETF 시장에도 +52.4억달러의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그치면서 북미 ETF 시장에서만 직전주 대비 자금 유입 규모가 196.5억달러 가량 줄어들었다. 북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매수세 유입 흐름이 진행된 동시에, 신흥 아시아 지역 주식형 ETF 시장에서만 -9.9억달러의 투자자금 유출이 발생하였다.
- 종목별 수급:**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흐름을 살펴보면,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심리와 FOMC를 앞둔 경계심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변동성에 대응하는 대표 ETF 종목들인 ULTY, TSLY가 각각 1:10, 1:5의 주식병합 진행 영향이 더해지면서 자금 유입 상위 종목군에 자리하였고, SPY(S&P500)에도 +34.7억달러가 유입되었다. 이와 함께 QQQ(NASDAQ100), VXUS(미국 제외 글로벌증시), SPYM(S&P500), VEA(미국 제외 선진국)와 같은 ETF들에도 +5억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순유입되었다. 채권형 ETF의 경우 HYG(HY회사채), BND(US Total), SGOV(초단기국채), EMB(EM USD)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SCHD(단기국채), BIL(초단기국채), SCHR(중기국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대표 온 현물 ETF SLV로 +8.8억달러가 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금주에는 12월 FOMC(12/9~10)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25bp 인하 전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25bp 인하 결정 여부보다는 가이던스와 디테일들이 중요한 회의이다. 먼저 12명의 투표권 보유 인원 가운데 몇 명의 소수 의견이 등장할지, 어느 방향으로 분포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9월 FOMC 당시에는 11대1(50bp 인하 1명)의 결과가, 10월 FOMC에서는 10대2(동결 1명, 50bp 인하 1명)의 표결로 각각 25bp 인하가 결정되었다. 25bp 인하 결정과 함께 확인되는 소수 의견의 분포는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해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12월 회의인 만큼 점도표와 경제전망(SEP)이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준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의장은 편더멘털 문학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내비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10월과 11월 지표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FOMC 회의인 만큼, 발언의 강도는 제한되겠으나 고용과 소비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고용과 CPI 지표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발표 계획 X), BLS(노동통계청)는 11월 고용보고서를 16일, 11월 CPI는 18일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CPI의 경우 최근 소비심리 위축, 구매력 약화 현상들을 고려할 경우 기업들의 가격 전가 기조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 FOMC와 더불어 일부 기업 실적 발표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다. FOMC 결과를 확인하는 타이밍과 맞물려서 10일(수) 미국 장 마감 후에 Oracle과 Adobe, Synopsys가, 11일(목) 장 마감 후에 Broadcom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다. AI 버블론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불안심리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Oracle의 경우,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와 급격히 증가한 Capex 규모 및 이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우려가 커던 만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기실적발표 내용을 고려할 경우 긍정적 가이던스 제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roadcom은 Google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 중 하나로써, 구글 TPU와 Meta 등 하이퍼스케일러 향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서 주가 방향성을 탐진하게 될 전망이다.
- AI의 주도권에 대한 센티먼트가 변화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수익성이 확인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CHAT(AI)와 병목현상 발생 영역의 SMH(반도체), CHAT(AI), ZAP(전력), URA/NLR(원전)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을 염두에 둔 XLE(에너지)와 XLF(금융), 개별 수요 기대가 유효한 XBI(바이오테크), XLV(헬스케어)를 비롯해 QDF(퀄리티배당), BTAL(β롱숏) 등의 ETF도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 Equity

2025년 12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 DIN (Doo It Now)

## 12월 FOMC 프리뷰(Feat. 카오스 이론)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FOMC 회의는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요인이다. 그러나 그 부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달려 약세 추이와 외국인 자금 유입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중시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 간 이견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점도표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이때 평균값(average)보다 중위값(median)에 보다 의미 있는 신호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SEP(경제전망요약)에서는 물가 향방을 알기 위해 성장을 전망치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AI 중심 성장주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과 차입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 등 주식시장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회견 내용 자체보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이슈에 더 쏠릴 공산이 크다. 정책 혼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점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12월 FOMC 회의는 결국 주식에 호재이다.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뿐 아니라, 한국 증시 내부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단연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다. 외국인 수급은 궁극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합작품인 환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근 달러-원 환율은 달려 인덱스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유인은 겪이지 않고 있다([10/27, 다 같은 한국이 아닙니다](#)). 이는 연말·연초로 예정된 3차 상법 개정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 구조적 개선 기대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정책이 실현된다면, 특히 코스닥 지수는 연말·연초 강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12/2, 하이브리드 전환 전략으로 바라본 구글과 코스닥](#)).

한국은행은 현재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글로벌 달러의 운명을 결정짓는 12월 FOMC(한국시간 12월 11일 새벽 4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톤을 종합하면, 이번 회의는 25bp 인하라는 단일 결정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이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내부 균열이 상당 수준 노출될 전망이다. 시장이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점도표(dot plot)다. 이번에 범위(range)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 분열이 극심했던 회의에서 그랬듯이 실질적인 정책 신호는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median)에 더 강하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월가 주요 IB들은 2026년 매 분기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인하 속도가 둔화하거나 하반기에는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비판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oohn@hanafn.com

론도 적지 않다. 하나증권은 2026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둘째, SEP(경제전망요약) 내 성장을 전망이다. 사상 최장 기간의 셋다운 여파로 연준이 이중 책무(dual mandate)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 흐름은 오히려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 가격의 하락 전환,ISM 서비스업 지수 내 물가 항목의 고점 통과,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유가 등은 모두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인하 중단을 정당화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성장 억제 요인인지 물가 압력 요인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혼재된 물가 신호 속에서 시장의 촉각은 성장 전망 상향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9월에 이어 2026·2027년 성장을마저 상향 조정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는 역설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QT 종료에 따른 적정 지준 규모, AI 중심 성장주의 급격한 재평가 및 빅테크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필요 시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전통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진짜 관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 레임덕 국면에 들어선 현 의장보다 차기 의장 인선 이슈다. 외신에 따르면 연초 새로운 의장 지명이 유력하며,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은 모두 친(親)트럼프 성향에 완화적 기조를 가진 인사들이다. 역사적으로 신임 의장 지명 후 3개월간 채권시장은 불문을처럼 금리를 밀어 올렸고(버냉키 예외), 주식시장은 매파적 인사(풀 볼커)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으로 응답했다. 달러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카오스 이론이 말하듯 겉으로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예상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의 규칙성이 흐르고 있다. 바로 QT 종료와 지속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통해 실질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성의 증가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따라서 12월 FOMC는 단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이벤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이라고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 2026년은 초주식시대, 즉 기회의 해이다([11/24, 초주식시대\(Hyper-Stock Era\)](#)).

2025년 12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 인도

# 신흥국 전략

## 인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배경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인도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이로써 올해 누적 인하 폭은 125bp

인도 중앙은행(RBI)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25bp 인하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인하 폭은 125bp에 이른다. 고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며 중앙은행이 보다 유연한 정책 대응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인도의 물가는 식품 가격 안정에 힘입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CPI는 YoY +0.25%로 2016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재이 말호트라 RBI 총재는 현 국면을 ‘보기 드문 골디락스(rare goldilocks)’라 평가했다.

12월 통화정책회의의 직전 발표된 FY2026년 2/4분기(2025년 7~9월) 실질 GDP 성장률이 YoY +8.2%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었으나,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에서 약세 조짐이 나타난 점이 정책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10월 대(對)미 수출이 고율 관세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며 대외 수요 부담이 뚜렷해졌고, 10월 산업생산 역시 YoY +0.4%로 크게 둔화됐다. 물론 축제 시즌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11월 제조업 PMI 까지 하락하면서 이는 단순한 캘린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생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 및 제조업 생산 둔화가 현실화되는 환경에서 내수 회복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확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루피화가 달러 대비 90루피를 돌파하며 우려가 확대된 데 대해 RBI는 환율의 절대 레벨을 목표로 삼기보다 시장에 결정권을 맡기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1조 루피(약 11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과 50억 달러 외환스와프를 병행해 총 160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증시 관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증립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RBI가 루피 약세를 일부 용인하는 스템스를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 수급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수 상단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흥국에서 과도한 환율 개입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변동성만을 관리하겠다는 RBI의 접근은 정책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외 환경도 점차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환율 부담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된 내수 부양책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는 내수 중심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나, 견조한 내수 기반과 완화적 정책 기조, 대외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5년 12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 Fixed Income

# 해외채권

## 브라질 국채 금리 급등 코멘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은 오히려 룰라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
- 브라질 10년물 금리는 12/5 당일에만 54bp 급등. 시장 반응은 다소 과도했다고 판단
- 내년 2분기부터 혜알화 채권 보수적 관점 유지. 점차 달려 표시 채권에 관심을 갖을 필요

### 변동성 확대 국면 초입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이자 상원의원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를 내년 대선 후보로 지명한 이후 브라질 국채 금리와 혜알화 환율이 급격한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대선 공식 후보로 출마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시장의 불안정은 지표로 명확히 드러났다. 브라질 10년물 국채 금리는 12/5 당일에만 54bp 상승하며 다시 13%대로 올라섰다. 2014년 이후 브라질 10년물 금리의 일간 변동 폭이 50bp를 상회했던 적은 총 15차례 존재했는데, 이번 일간 변동폭은 1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혜알화는 달러와 원화 대비 2.6% 평가절하되었다.

모든 자산군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1)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프레이타스 현 상파울루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언급하지 않은 실망감과 2)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지명이 룰라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오히려 우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룰라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AtlasIntel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로 여겨져 왔던 프레이타스의 지지율은 룰라와 유사했다(프레이타스 47% vs 룰라 49%). 한편, 플라비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국민은 34%에 불과했다.

정치적 이슈로 인한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이번 시장의 반응은 다소 과도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혜알화 표시 채권 저점 매수가 매력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 과거 대선 당해 연도 중 인하 기였을 때 브라질 장기물 금리와 혜알화는 2분기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며 약세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내년의 경우 만기가 긴 혜알화 표시 채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 잡을 필요가 있겠다. 점차 달려 표시 채권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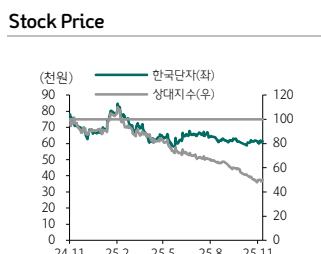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11.14)	61,300원

Key Data	
KOSPI 지수(pt)	4,011.57
52주 최고/최저(원)	84,700/57,900
시가총액(십억원)	620.0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0,11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
외국인지분율(%)	23.35
주요주주 지분율(%)	
이창원 외 10 인	34.28
국민연금공단	10.2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530	1,671
영업이익(십억원)	146	170
순이익(십억원)	110	129
EPS(원)	10,741	12,778
BPS(원)	115,012	125,660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962	1,168	1,297	1,510
영업이익	76	64	112	171
세전이익	86	70	100	201
순이익	63	49	73	142
EPS	6,041	4,677	7,000	13,654
증감율	8.8	(22.6)	49.7	95.1
PER	12.6	11.1	10.7	4.9
PBR	0.9	0.6	0.8	0.6
EV/EBITDA	5.2	3.9	4.5	2.6
ROE	7.5	5.6	7.8	13.2
BPS	81,164	83,872	89,779	103,622
DPS	700	700	700	2,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2025년 12월 9일 | 기업분석

## 한국단자 (025540)

### 반도체, ESS, 로봇 커넥터 등으로 확장 중

#### 자동차용/전자용 커넥터를 기반으로 반도체용/ESS용/로봇용으로 확장 중

한국단자는 자동차/전자/전기 제품에 쓰이는 커넥터와 전장 모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제품의 종류가 8,800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자동차용에서는 단순 커넥터부터 친환경차용(고전압 커넥터, ICB, BDU, Inlet 등), 전장용(GNSS 모듈, LVDS 커넥터, 에어백 총돌 센서 등)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친환경차용 제품들이 연평균 20% 성장하면서 자동차 부문내 비중이 37%까지 확대되었다. 전자용에서는 생활가전과 IT 기기에 쓰이는 커넥터/소켓 등을 생산 중이다. 최근에는 신사업 분야로 반도체, ESS(에너지 저장장치), 로봇 커넥터 등으로 확장 중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AI Server 보드용 커넥터, 반도체 장비용 멀티 모듈 커넥터 등을 생산하여 국내 K사 등에 공급 중이다. ESS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배터리팩 연결용 Pack to Pack 커넥터를 개발해 2025년 양산을 시작했고, 2026년 국내 L사향으로 납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Harness, Cable, 저전압 커넥터, 로봇 전원 연결용 Power 커넥터 등 생산해 국내 산업용 로봇 개발사인 D사에 공급 중이다. 국내 산업용 로봇 및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R사와 Y사 등과도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전기차/로봇 개발 회사에는 현재 전기차용 Charge Inlet을 공급 중인데, 로봇 부품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B사 포함). 현재 신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은 1% 이내이지만, 해당 산업에서의 성장 기회 및 한국단자의 뛰어난 제품 대응력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케이티네트워크와 폴란드 법인의 성장이 미국 법인의 부진을 만회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은 1%/24% (YoY) 감소한 1.1조원/1,061억원(영업이익률 9.6%, -2.9%p (YoY))을 기록했는데, 한국 본사 및 연결 자회사인 케이티네트워크(+27%), 그리고 폴란드 법인(+97%)의 성장이 있었지만, 전년까지 고성장했던 미국 법인이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고객사의 생산 축소의 여파로 -43% 역성장하면서 실적이 둔화되었다. 미국 법인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산업수요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케이티네트워크가 EV/HEV용 하네스의 공급 증가로 성장을 이어가고, 폴란드 법인도 유럽 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EV/HEV 생산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만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은 1.5조원/1,370억원/1,120억원으로 추정한다.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 수혜 속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장도 기대

한국단자의 주가는 매출액 증가율이 2021년~2024년 연평균 17%의 고성장에서 2025년 정체되면서 부진했다(YTD +0%). 현재 주가는 P/E 6배, P/B 0.6배 수준의 Valuation을 기록 중이고, 총 주주환원을 30% 정책 속 기대 배당수익률이 3% 중반이고, 자기주식 매입/소각도 기대된다. 미국 법인의 둔화는 아쉽지만,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친환경차용/전장용 커넥터의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고, 반도체/ESS/로봇/의료기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장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는 판단이다.

2025년 12월 09일 | 산업분석

## Neutral

# 운송

## 11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한일령 수혜 있으나, 동남아가 발목

###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8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28,000원 | CP 22,350원

진에어(272450)

BUY | TP 8,500원 | CP 7,080원

### 11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603.8만명(+2% (YoY))

11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2% (YoY) 증가한 603.8만명을 기록했다. 중국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동남아/중국 여객수송량이 -0%/-12%/+29%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지역 여객수송량은 1%/8% 증가했다. 11월 인천공항 환승객은 49.7만명(-11% (YoY), 비중 8.2%)였다. 항공사별 11월 여객수송실적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월 비 +5%/-13% 변동했고, 진에어/티웨이항공/제주항공은 -15%/-1%/+0% 변동했다.

### 11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6.2만톤(+1% (YoY))

11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1% (YoY) 증가한 26.2만톤을 기록했다. 중국/동남아 지역 수송량은 -1%/+4%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지역은 1%/2% 감소했다. 대한항공의 11월 화물 수송량은 1% (YoY) 감소한 10.7만톤, 아시아나항공의 수송량은 79% 감소한 1.2만 톤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사업부를 인수한 에어제타의 11월 화물 수송실적은 4.3만 톤이었다.

### 중국의 “한일령” 효과로 한-중 노선 반사수혜 기대되나, 동남아가 발목

중국의 “한일령”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 항공편 감편에 들어가면서 한국이 중국인들의 근거리 여행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노선의 여객 성장률이 높아진 기저에도 불구하고 29% (YoY) 증가하면서 전체 여객량을 견인했다. 11월 중국 노선의 운항 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도시보다는 지방 노선 위주의 증편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 노선은 공급 대비 수요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임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중국 노선이 많고, 한일령으로 인한 수혜가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다만 양사 모두 중국 노선의 매출 비중이 10% 남짓으로 전체 탑라인 기여도(YoY 기준)는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4분기는 동남아 노선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동남아 여객량은 11월 12% (YoY) 감소했고, 2019년 대비로도 15% 감소했다. FSC의 경우 중국 노선 여객량 증가가 동남아 노선 위축을 만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LCC의 경우 동남아 노선 매출액 감소로 어려운 4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분기의 동남아 여객량이 증가세로 전환된다면 LCC의 실적 전망은 중국 노선 활황과 함께 밝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한일령”은 분명 호재이나, 동남아 여객 수요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 2026년은 지방균형발전

건설 Weekly | 2025.12.09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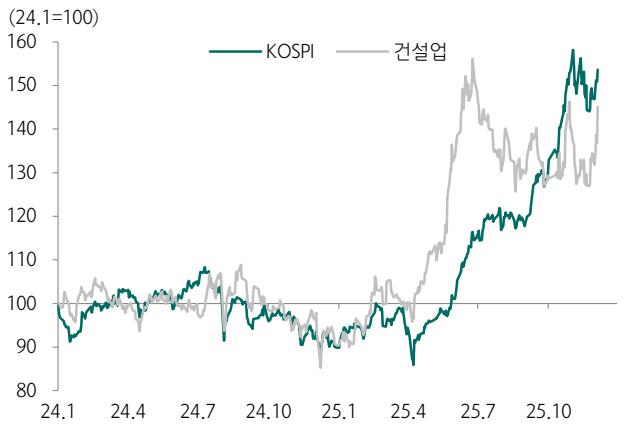
## 주간 동향 및 이슈

###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5%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 연기금이 모두 매수했다. 원전 관련주(현대건설, 대우건설)과 중소형주택주가 크게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0으로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2주 연속 상승했다(+0.06%), 전세가는 25주 연속 상승했다(+0.08%). 수도권 매매가는 40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도 41주 연속 상승(+0.11%)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45주 연속 상승(+0.17%), 전세가는 42주 연속 상승(+0.14%)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모두 5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18주 연속 상승(+0.06%), 기타지방 14주 연속 상승했다(+0.05%). 광역시별로 인천(+0.06%), 부산(+0.05%), 울산(+0.12%), 광주(+0.01%)가 상승했으며, 대구(-0.02%), 대전(-0.02%)은 하락했다.
-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11건(전남나주, 충남천안, 인천, 세종, 울산, 경기의왕/화성/김포/안양, 제주)이다. 세종, 울산, 경기의왕/안양에서의 청약 결과가 좋았던 반면, 충남천안, 인천, 경기김포/화성에서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8건(제주, 충남홍성, 경기수원/시흥/이천, 경남창원)이다.
- 연말 추가공급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대선 공약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중소형 종목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상승한 것으로 해석한다. 2026년은 지방 부동산의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전망한다(연간전망 자료 참조). 2026년은 주택주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며, 주택주 중 TOP PICK은 GS건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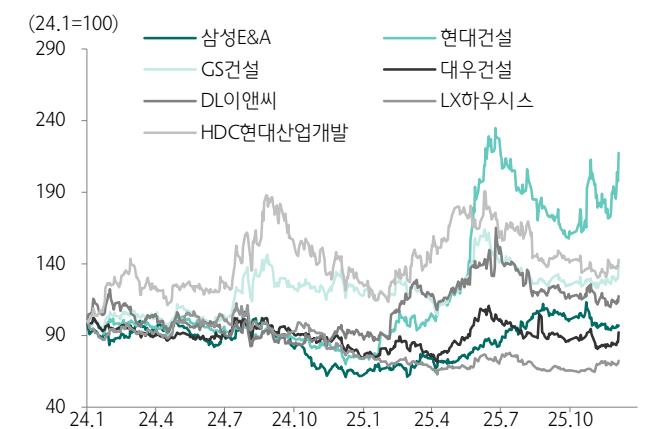
###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8	108,400	109,500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현대로템 (064350.KS)	12/8	182,000	192,100	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Q25 Review 매출액 1.6조원(YoY +48.1%), 영업이익 2,778억원(YoY +102.1%) 기록</li> <li>이라크, 루마니아, 폐루 등 다수 국가와 수출 협상 진행 중</li> </ul>
두산 (000150.KS)	12/8	928,000	890,000	-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년 AI 가속기향 하이엔드 CCL 공급으로 성장 가시성 확보</li> <li>하이엔드 내 반도체 패키지, 네트워크향 수요 회복세 지속</li> </ul>
삼성에스디에스 (018260.KS)	12/8	176,000	174,600	-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AI의 국내 스타게이트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자로 참여</li> <li>국내 AI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투자처</li> </ul>
KCC (002380.KS)	12/8	429,000	435,500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유기실리콘 반내권(Anti-Involution) 정책 시작으로 중국 DMC 가격 급등</li> <li>DMC 상승, 매출 비중 60%에 달하는 범용 및 증가 제품군의 직접적인 판가 상승 견인</li> </ul>
CJ대한통운 (000120.KS)	12/8	97,500	96,200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쿠팡의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며 반사 수혜 기대감 상승</li> <li>물류 자동화 및 물류창고 아웃소싱 확대로 계약 물류(CL) 안정적 성장 기대</li> </ul>
파라다이스 (034230.KS)	12/8	17,460	17,650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li> <li>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li> </ul>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8	110,200	107,900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li> <li>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로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li> </ul>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7,4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li> <li>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li> </ul>
고영 (098460.KQ)	12/8	26,950	26,500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수출 시작 및 일본향 매출까지 기대</li> <li>미국 관세 부과에도 미국 내 직접적인 경쟁자가 많지 않아 오더 영향 제한적</li> </ul>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02%	-1.31%p	+74.43%	+18.7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7,4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li> <li>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li> </ul>
SGC에너지 (005090.KS)	12/1	23,250	23,850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년에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투입 매칭제로 REC 가중치 상향될 전망</li> <li>전체적인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li> </ul>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4,890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li> <li>중국 부품 재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li> </ul>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7,900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li> <li>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li> </ul>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5,450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li> <li>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77,000	2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62,000	24.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li> <li>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li> </ul>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289,000	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li> <li>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li> </ul>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9,500	3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7,900	1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li> <li>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을 약 53% 수준</li> </ul>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63,200	1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li> <li>하반기 종합투자계약(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li> </ul>
S-Oil (010950.KS)	10/1	62,400	79,700	2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li> <li>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성 높아</li> </ul>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1.69%	-8.40%op	+57.83%	+0.77%o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5,155	2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li> <li>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li> </ul>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065	3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li> <li>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li> </ul>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6,090	2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li> <li>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li> </ul>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7,305	78.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li> <li>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크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li> </ul>

##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64.42	1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li> <li>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li> </ul>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2.83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li> <li>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li> </ul>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8.47	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li> <li>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li> </ul>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5.20	1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li> <li>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li> </ul>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3분기 GDP F (-2.3%, 2분기 2.2%)</li> <li>■ 중국 11월 수출/입 (5.9%/1.9%, 10월 -1.1%/1.0%)</li> <li>■ 유로존 12월 센트스 투자자기지수 (E--, 11월 -7.4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E--, 10월 98.2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11월 실업률 (E--, 10월 2.6%)</li> <li>■ 중국 11월 소비자물가 (E--, 10월 0.2%)</li> <li>■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E--, 10월 -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12월 기준금리 (E 3.75%, 10월 4.00%)</li> </ul>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11월 소매판매 (E 2.9%, 10월 2.9%)</li> <li>■ 중국 11월 광공업생산 (E 5.0%, 10월 4.9%)</li> <li>■ 중국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E -2.4%, 10월 -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E--, 11월 48.7P)</li> <li>■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P (E--, 11월 49.6P)</li> <li>■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11월 38.0P)</li> <li>■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E 38K, 10월 -)</li> <li>■ 미국 11월 실업률 (E 4.4%, 10월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11월 수출/입 (E--/--, 10월 3.6%/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로존 12월 기준금리 (E 2.00%, 10월 2.00%)</li> <li>■ 미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10월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10월 3.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B 12월 통화정책회의</li> </ul>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알아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